

 미래창조과학부 http://www.msip.go.kr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	
보도 일시	2016. 5. 18.(수) 조간(온라인 5. 17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배포 일시	2016. 5. 17.(화) 9:00	담당 부서	거대공공연구정책과		
담당 과장	권현준 (02-2110-2430)	담당 자	우명순 사무관(02-2110-2437)		

미래부, 「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」 추진

- 무인이동체 통합발전 및 신(新)시장 창출을 위한 공통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
- ICT 등 타분야 산업체들이 드론 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
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미래부)는 ‘무인기 성장 동력 확충’ 및 ‘미래선도기술력 확보’를 목표로 향후 3년간 총400억 원을 투입하여 「무인이동체*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* 「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」 개최(5.13)

*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(무인기, 자율주행자동차, 해양 무인이동체 등)

□ 세계 각국이 급격히 성장 중인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정부도 무인이동체 분야에 지난 4년간 약 2,84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가격과 성능면에서 중국과 선진국에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□ 그 간 무인이동체 기술이 육상(자율주행자동차), 해양(무인수상정), 항공(무인기)으로 구분되어 개발이 이루어져 개발 비용,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타 분야로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점에 착안하여 동 사업을 통해 무인기, 자율주행자동차,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 분야를 아우르는

공통 플랫폼 기술(부품, 항법, 통신, 운용 SW 등)에 대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,

- 향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기능성의 고도화된 무인이동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* 기술 및 무인이동체 지능화**연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다수·다종의 무인이동체간 통합 운용을 통한 협업 기술

** 인공지능기반으로 인식·작업·기동 및 협업하는 무인이동체 기술

- 한편, 소형무인기(30kg 이하, 드론)의 경우 민간시장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미용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성능을 요구하는 민수 및 공공 서비스 시장을 타깃으로 국내 드론 중소·벤처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.

- 이를 위해 안전성 향상, 난조건 운용 등 필수 기반기술 및 타분야의 뛰어난 ICT 기업들이 드론 분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등을 출연(연)과 대학 등이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고,

- 정부나 공공기관의 드론 수요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과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적 기술력을 갖춘 드론 중소·벤처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- 무인이동체사업단을 5월 중에 발족시키고, 현재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실시 중인 기술수요조사와 과제공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.

- 동 사업을 통해 무인이동체 R&D를 효율화하고,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에 대비하는 한편, 타분야의 뛰어난 ICT 기업들이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 1.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우명순 사무관(☎ 02-2110-24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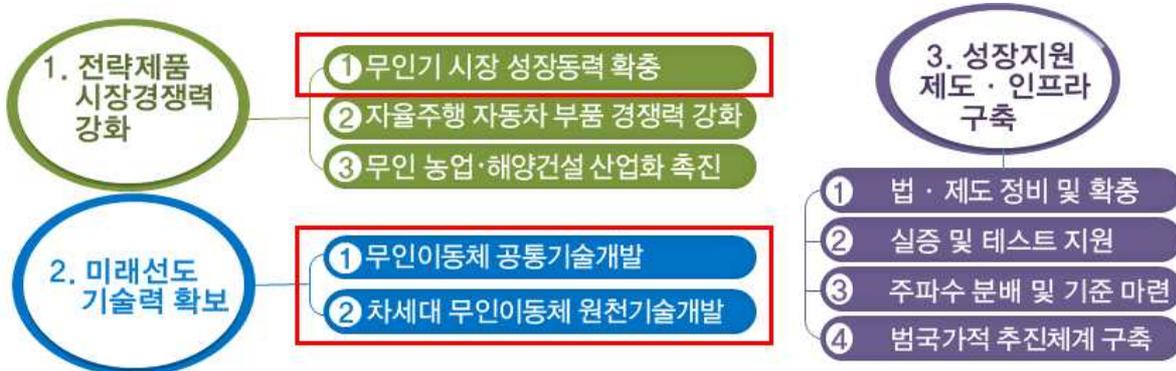
- (배경) 무인이동체 新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,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 제고 시급
- (사업목적) 단기간(3년 이내)에 공공용·민수용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을 확보

< 「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」 대통령 지시사항(15.5.29, 과학기술자문회의)>

- ◆ 무인이동체는 기술특성상 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없는 만큼, 정부에서 공통기술·미래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
- ◆ 출연(연)과 부품기업이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중소 드론기업에 기술이전 및 지원

- (총 사업기간) '16. 5. ~ '19. 7.
- (총 사업예산) 400억원('16년 150억원)
- (수행주체)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(무인이동체사업단)
- (사업범위) 「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」 중 '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', '미래선도기술력 확보' 분야

<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(15.5.29) >



□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

○ 「미래선도 기술력 확보」는 중장기적으로 무인이동체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공유 및 상호적용, 선도기술 발굴을 지원

- (**공통기술**) 다양한 무인이동체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플랫폼 기술 (부품, 항법, 통신, 운용 SW 등)에 대한 통합적 연구개발 추진

※ 탐지·인식, 동력원·작업, 인터페이스, 통신·네트워크 및 정보보호

- (**원천기술**) 미래 기술·사회·문화적 변화 반영, 기술적 난제 극복 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(인공지능 기반의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기술, 극한형·융복합형·개인형 등) 개발 추진

◆ 단기과제는 본 사업을 통해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「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(예비타당성 조사 추진)」으로 추진

○ 「소형무인기 분야」의 경우 저가 취미용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성능을 요구하는 민수 및 공공 서비스시장을 타깃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추진

※ 출연(연), 대학 등이 보유한 세계 7위 수준의 무인기 기술(틸트로터 세계 2위)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되,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기반의 과제 발굴 추진

- (**기반기술**) 소형 무인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기술(소형무인기 설계툴, 안전성 향상, 난조건 운용 등)을 출연(연), 대학 등이 개발·이전

- (**활용·서비스 기술**)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형 무인기 공공수요*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초기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·벤처 출현·성장 지원

* 국방, 기상 예측, 환경감시, 치안·교통 등 각종 인프라

○ 연구성과들이 현장에서 활용·확산되고, ICT 등 뛰어난 역량을 가진 타분야 기업들이 무인이동체 분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체제 및 생태계 조성

□ 소요예산(안)

구분	소요 예산		기간
	총 예산	'16년	
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	105억원	40억원	'16.5
차세대 무인이동체 미래원천기술개발	80억원	30억원	~
소형무인기 성능 향상	215억원	80억원	'19.7
계	400억원	150억원	

※ 정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